

韓·日間の 電子業界小委 구성으로 상호 協調

저는 오늘 韓國과 日本間の 技術 협력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韓國이 60~70년대의 고도 成長을 통하여 量的인 면에서 中進國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技術面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웃이 日本에 비하여 食品, 纖維, 電子, 金屬 및 精密機械工業 등 거의 全産業 분야에 걸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상의 제약도 있고 해서 제 자신이 맡고 있는 電子工業 및 電氣用品産業에 관하여 주로 몇 가지 말씀과 提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俗談에, 「가까운 이웃은 먼데 사는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四寸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사실상 日本의 인접국으로서의 우리나라는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마는 우리의 電子工業은 日本 業界의 영향을 너무나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電子工業의 草創期인 20여 년 전부터 우리는 日本에서 주로 生産技術을 도입하여 왔는데, 日本의 業界는 技術만 壳渡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生産機器, 소요되는 原資材와 部品까지도 포함하여 우리가 買入하여야만 技術을 팔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技術로 생산되는 제품의 國際市場 진출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심한 條件附의 技術 讓渡의 방법은 다른 先進國에서는 예를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電子製品에 소요되는 수백수천의 部品과 材料를 日本에서 수입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따르는 거대한 貿易赤字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部品産業과 原資材工業의 발달이 지연되고 있으며 國際輸出市場에 진출도 어렵게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業界의 책임도 있습니다. 즉 생활형식과 사정이 비슷한 日本에 대한 친근감, 言語의 이해, 근거리 등에 고집하여 우리 業界들이 日本 業界에 너무 매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日本業界들의 적극적인 商人精神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즉 日本의 製造業체들은 小量注文이나 또는 특별 제품 注文等에 대하여 歐美 業체들보다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으로써 顧客의 注文에 응함으로써 해서 800余個의 우리 電子 中小企業체들은 큰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本橋는 지난 6월 11일 世宗文化會館 會議室에서 개최된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회의에서, 本會의 金玩熙 會長이 「尖端 技術의 移轉」이란 議題에 대해 講演한 것 중 일부 발췌한 것이다.

同會議에서 金 會長이 提案한, 韓·日 電子業界小委員會의 구성 件은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金 玩 熙

本会 会長

그러나 한편 日本의 電子工業의 발전을 살펴보면 日本이 美国을 위주로 하는 여러 先進国으로부터 수천수만의 技術과 特許를 도입하여 그 技術로 電子製品을 생산하고 또 생산된 제품은 받은 特許로 그 先進国으로 다시 逆輸出하는 것이 가능한 데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전대 美国으로부터 도입된 技術로 생산된 日本 제품의 美国市場 진입을 美国業界가 불응하였더라면 오늘날의 日本의 經濟 발전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천수만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며 또 生産技術 자체의 급진적인 진화와 동시에 需要市場의 계속적인 변천을 느끼고 있는 電子業界같이 첨단가는 技術導入과 特許權 사용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産業 분야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全産業에 걸쳐서 지금까지 수입해 온 외국 技術件數의 근 60%가 日本에서 왔으며 電子電氣 분야에서는 60% 이상이 日本에서 도입한 統計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년 전에 모나코 王國의 Monte Carlo에서 英國의 유명한 經濟紙인 Financial times의 주최로 열린 政府 및 業界 특히 電子 電氣産業界 대표들이 참가한 세미나에 참가하여 각국 대표들에게 이러한 호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韓國의 産業 특히, 電子工業은 여러 先進國의 지금까지의 도움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제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으나 하루바삐 더욱 성장하여 여러분들의 은혜도 갚고, 저희 뒤에 아직도 많이 있는 後進國家 들을 돕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상 더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産業 生産技術과 國際市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아직도 先進國 여러분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技術을 저희에게 판매하여 주시고 또 輸出市場의 일부도 양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바로 이웃에 계시는 日本의 여러분께 똑 같은 호소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電子工業을 이 이상 끌고 나가려면 録画再生裝置(즉 VTR과 VCR)의 生産技術의 도입과 半導體産業의 육성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 政府와 産業界가 합심하여 이 분야의 振興에 크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에 필요한 첨단가는 技術이나 施設의 도입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 자체가 생산하여도 商標 사용에 관한 國際特許의 不許로 인하여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VTR의 경우, 日本業界가 완전 역제와 独占의 입장을 고집하고 있으므로해서 우리 電子業界는 이 이상의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半導体工業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日本의 半導体工業 자체가, 美国에서 계속 도입하고 있는 技術을 토대로 하여 日本독자의 능력으로 개발한 自動生産 施設의 활용으로 美国과 경쟁할 입장을 굳혀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半導体工業도 최초에는 美国 企業体들이 주로 저렴하고 우수한 勞動力의 이용을 위하여 投資 진출로 시작된 것이지만 지금은 여러 国内企業体들이 單純賃加工 이상의 生産工程에 들어가 있습니다. 生産施設, 특히 새로 개발되는 生産機器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尖端 技術은, 시간이 걸려도 우리 자체에서 개발하든지, 외국 技術者를 고용하든지, 또는 日本 半導体業界가 실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美国의 소위 Silicon Valley 에 우리도 投資 진출을 해서 現地에서 技術 습득을 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技術을 취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인접국끼리, 韓國과 日本의 兩業界가 國際市場에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副作用이 매우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관계가 깊고 또 바로 이웃에 있는 日本業界에서 사오자는 것이 우리 業界의 생각이니 이에 대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外國人들이 저에게 자주 다음과 같은 質問을 합니다. 「世界의 電子市場을 석권하고 있는 日本의 인접국으로서 韓國의 電子工業을 일으키는 데, 日本의 業界가 도움이 되는가, 또는 어려움을 주는가?」 저는 이런 질문에 지금까지 답변하기를, 「得도 보고 損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電子工業 草創期에는 得을 보았으며, 현재는 損을 보고 있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도움을 주신 日本業界의 지원으로 우리 電子工業의 더욱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어 兩國間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또 급속히 개발진전되는 電子製品과 生産技術의 상호 이해와 제휴를 도모하기 위하여 日本 대표 여러분들께 여기서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즉, 韓·日 電子業界 대표들로 電子業界 小委員會를 구성하여 6개월마다 會晤를 가져서 技術 및 交易 情報 교환과 상호 협조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提案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협조가 電子 분야에서 시작되어 나아가서는 食品産業의 식품 가공 技術, 纖維産業에서는 고급織物, 염색 및 원료 배합 기술, 精密機械産業에서는 設計 및 電子應用技術 등에 까지도 파급되기를 바라며 저의 말씀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